

문서기호 경영심의부-2025-280 (2025.4.18)
수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참조 지역미디어정책과장
제목 2025년 3월 목포문화방송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1. 방송통신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 3월 목포MBC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붙임 1. 2025년 3월 목포MBC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보고 1부
2. 2025년 3월 목포MBC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보고 엑셀양식 1부. 끝.

목포문화방송(주) 대표이사 사장 김 손 규



2025년 3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목포문화방송(주)

1. 회의 개최

| 연 번 | 일 시 | 장 소 | 참석인원 | | | | 회의형태 | | |
|--------|---------------|------------------|-----------------------------|------------|-------------|----------------|------|-----|----|
| | | |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 방송국 | | 총 인원 (명) | 대면 | 온라인 | 서면 |
| | | | | 경영진 (명) | 경영진 외(명) | | | | |
| 1 | 3월 19일 (수) | 목포MBC 회의실(8층) | 8/12 | 7 | | 15 | ○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이혁영 위원장, 이해송, 나양명, 문옥희, 이현준, 한원희, 차상훈, 박찬영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사장 김순규, 경영기술국장 이재왕, 디지털제작국장 윤종욱, 보도국장 박영훈, 경영심의부장 김지선, 편성제작부장 문선호, 보도부장 김진선

2. 심의 결과 및 조치 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 방송 편성 | 방송프로그램 | | | | | 자체 심의규정 | 합계 |
|----------|--------|----|----------------|----|----|------------|----|
| | 보도 | 교양 | 연예.오락 (스포츠) | 기타 | 소계 | | |
| | 4 | 4 | | | | | 8 |

나. 사업자 반영

| 구 분 | 수 용 | 의견 참고 | 반 론 | 합계 |
|-----|-----|-------|-----|----|
| 건 수 | 8 | | | 8 |

*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수용비율 기준으로 평가(활용비율 0%는 0점)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 요청 내용 | 조치 내용 | 조치일자 | 비고 |
|---------|-------|------|----|
| 해당사항 없음 | | | |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 요청 내용 | 조치 내용 | 조치일자 | 비고 |
|---------|-------|------|----|
| 해당사항 없음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 성명 | 생년월일 | 전.현직 | 변동사유 | 비고 (임기) |
|----|------|------|------|------------|
| | | | | |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 평가기준 | 해당여부 |
|--|------|
|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 |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선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요청자(단체) | 공개내용 | 공개방법 |
|---------|---------------|---|
| 방송통신위원회 | 시청자위원회 월간운영실적 | - 서면 - 목포MBC홈페이지 게재 (www.mpmbc.co.kr) |

나. 시청자위원 명단 (총 12명)

|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추천부문 | 경력(직업) | 전화 | 위촉기간 |
|----|-----|------------|----|----------------------------------|------------------------------------|-----------------------------------|-----------------------------|
| 1 | 이혁영 | 1946.01.01 | 남 | 경제단체 (목포상공회의소) | 씨월드고속훼리 대표이사 회장 | 010-4616-7770 | 24.4.1~ 26.3.31 (1회차) |
| 2 | 이해승 | 1961.5.8 | 남 | 인권단체 (목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 해바라기치과 원장 | 010-2654-2875 | 24.4.1~ 26.3.31 (2회차) |
| 3 | 배양자 | 1954.4.25 | 여 | 문화단체 (전남관광재단) | 전남도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010-3604-6808 | 25.2.1~ 27.1.31 (2회차) |
| 4 | 이형석 | 1961.8.17 | 남 | 소외계층권익대변단체 (목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 한국병원 원장 | 010-3606-0051 | 24.4.1~ 26.3.31 (2회차) |
| 5 | 백지숙 | 1962.6.24 | 여 | 소비자보호단체 (목포YMCA) | 목포대학교 교수 | 010-4562-1626 | 24.4.1~ 26.3.31 (2회차) |
| 6 | 여종구 | 1964.12.30 | 남 | 청소년관련단체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 목포신항만운영(주)대표이사 | 010-2290-2044 | 24.5.1~ 26.4.30 (1회차) |
| 7 | 나양명 | 1966.03.15 | 남 | 변호사단체 (광주지방변호사회) | 광주지방변호사회 목포지회 변호사 | 010-4620-3065 | 24.4.1~ 26.3.31 (1회차) |
| 8 | 이현준 | 1967.4.9 | 남 | 인권단체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 애중복지재단 대표 | 010-8608-6668 | 24.4.1~ 26.3.31 (2회차) |
| 9 | 한원희 | 1968.12.24 | 남 | 소비자보호단체 (목포YMCA) | 해양대학교 총장 | 010-2358-8232 집(010-3644-2325) | 24.4.1~ 26.3.31 (2회차) |
| 10 | 문옥희 | 1973.7.5 | 여 | 여성단체 (행복누리) | 사단법인 행복누리 대표 | 010-3610-4551 | 25.2.1~ 27.1.31 (2회차) |
| 11 | 차상훈 | 1980.10.10 | 남 | 노동단체 (한국노총 목포지역지부)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전남지역본부 위원장 | 010-4721-0908 | 24.4.1~ 26.3.31 (1회차) |
| 12 | 박찬영 | 1982.12.13 | 남 | 인권단체 (한국인권교육원) | 목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010-2602-9284 | 24.4.1~ 26.3.31 (1회차)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 | | | 수용 | 참고 | 반론 |
| 보도1 | - 이번 '전남도미래산업인식조사' 보도는 도민들의 정책 체감도와미래산업에 대한 인식을 실제데이터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깊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의 신뢰도확보와 데이터분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보도 시,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업분포 등 기초통계와 더불어 조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전남도미래산업 인식조사'는 목포MBC가 기획한 패널조사 시리즈의 첫 보도로,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문조사의 신뢰성확보와 데이터의 객관성에 대해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응답자 기본통계와 표본 수, 설문방식 등을 함께 제시해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조사주제와 관련한 전문가 대담을 정리화하여 보도의 심층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 | | |
| 보도2 | - 최근'김 산업 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연속보도는 어민들의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물김 공급과잉과 가격 괴리문제, 수출 불안까지 다양한 이슈를 다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 보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않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심층기획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산업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더 담아주시고,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현황과 개선의지도 조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위원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김산업의 구조적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사안으로, 목포MBC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현상보도에 그치지않고, 어민인터뷰, 소비자 물가분석, 정부정책반응 등을 포함한 심층기획 보도를 준비 중입니다. 특히 현장 목소리와 함께 산업 전문가의 해설도 병행하여, 문제의 본질과 해결가능성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 ○ | | |
| 보도3 | - 2월 주요 보도 중 대통령 탄핵관련 지역여론을 다룬 보도는 민심을 중심으로 정치이슈를 접근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특히 탄핵반대와 찬성집회 양측의 모습을 모두 다뤄 균형감을 유지하려 노력한 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민감한 정치사안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민인터뷰선정에 있어서 | -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탄핵관련보도는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사안을 다룰 때는 균형잡힌 시각과 다양한 목소리 반영을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의 지역, 연령, 직업군 등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편향성을 줄이고, 보도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 | | |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 | | | 수용 | 참고 | 반론 |
| | 도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 | |
| 보도4 | <p>- 무안국제공항 장기 폐쇄와 관련된 보도는 지역 교통망 붕괴와 관광업계 피해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p> <p>특히, 공항 폐쇄로 인한 여행업계의 도산 위기, 정부와 지자체 지원 부족, 대체 공항 활용 방안 부재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져 실질적인 문제 제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p> <p>향후 목포MBC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보도를 이어가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p> | <p>- 무안공항 장기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단순 보도를 넘어 후속 기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p> <p>정부의 약속된 지원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역 업계의 목소리를 추가로 취재 중이며, 대체 공항 문제, 피해 업계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종합 보도를 계획 중입니다.</p> <p>또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공항 정상화 로드맵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론화 역할을 하겠습니다.</p> | | | |
| 교양1 | <p>- '공존의 해법'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조명한 점이 고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책적, 제도적 맥락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고 느꼈습니다. 예컨대 이주 노동자 자녀들의 교육환경, 체류 불안정 문제 등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이슈가 단지 정서적 공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제도개선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p> | <p>- '공존의 해법'은 지역 내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중심으로 사회의 다양성과 공존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기획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교육 및 체류의 문제는 차기기획 보도에 반영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다문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다루겠습니다. 실질적인 제도개선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 | | |
| 교양2 | <p>- <소리로 떠나는 섬 여행 - 완도편>을 인상 깊게 시청했습니다. 방송이 단순한 여행 소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전통과 삶의 소리를 담아 내려 한 시도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장도 북소리와 해녀들의 물질 소리, 갯벌의 자연음을 마이크로 정밀하게 담아낸 장면에서는 섬의 정서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런 감각적인 구성은 시청자들에게 '섬을 오감으로 경험하게 하는 콘텐츠'로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리즈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전남의 다른 섬으로도 확대되길 바라며, 혹시 향후 계획이나 타</p> | <p>- 의견 감사드립니다. <소리로 떠나는 섬여행>은 당초 기획 단계부터 '지역성과 감성'을 함께 담는 다큐 시리즈를 목표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가 영상과 소리만으로 섬의 풍경, 문화, 사람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섬의 환경음을 적극 활용했습니다.</p> <p>현재 이 콘텐츠는 신안의 작은 섬, 고흥, 여수, 장흥 등 다른 연안 섬으로 확장한 후속 시리즈 제작이 내부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섬마다 전해지는 설화, 전통음악, 생활 방식 등을 중심으로 보다 입체적이고 깊이 있는 접근을 시도하려 합니다.</p> | | | |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 | | | 수용 | 참고 | 반론 |
| | 지역 제작이 예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섬의 문화유산을 어린 이·청소년들에게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콘텐츠 개발이나 자료 배포 계획이 있으신지도 여쭙보고 싶습니다. | 또한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말씀해주신 부분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목포MBC는 '어영차 바다야' 프로그램에서 송출되었던 영상자료들을 대한민국 초등학교 교과과정의 참고영상 자료로도 활용 중에 있으며, 추후 얼마든지 교육에 활용하는 목적이 있다면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다. | | | |
| 교양3 | - <공존의 해법> 시리즈는 개인적으로 매우 인상 깊게 봤습니다. '코네' 편에서는 한국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단지 조선소에서 일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언어를 배우며,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삶을 꾸려가는 모습이 진정성 있게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고, 자녀 교육, 정착 지원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런 현실을 조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이나 정책 대안까지 이야기로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 - 감사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시선이 단순히 '노동력'이 아니라 '지역의 일원'으로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기획이었습니다. '코네' 편은 말레이시아 출신 노동자가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고,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스며들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이주민 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 사례도 찾아 소개하려 합니다. 단순히 현실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 |
| 교양4 | - <다문화 야시장>은 단순한 문화 소개를 넘어서, 방송이 실제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아주 인상 깊은 사례였습니다. 베트남 셰프가 직접 현장에 참여해 메뉴 개발부터 인테리어, 손님 응대까지 경험하는 모습은 방송이 아닌 한 편의 '사회 실험'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목포 원도심 빈 상가에 들어선 이 1호점은 다문화 공존을 실현하는 모델처럼 보였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 점포 확장이나 다른 문화권으로의 확장도 고려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방송이 지역 상권, 관광, 청년 창업 등에도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쳤다고 보이는데, 목포MBC 차원에서 이 같은 '사회적 실험형 콘 | - 말씀해주신 대로, <다문화 야시장>은 단순한 시청률 목표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방송'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베트남 셰프 구안과 강레오 셰프의 협업은 지역 상권에 실제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방송 이후 베트남 커뮤니티, 대학생 단체, 청년 창업팀으로부터 지속적인 문의와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콘텐츠의 시즌2 개념으로 태국, 필리핀, 몽골 등 다른 국가 출신의 다문화 식당 창업 기획을 검토 중입니다. 방송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지자체 및 민간 기관과 협업하여 실제 창업 지원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또한, 목포MBC는 앞으로 '방송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 | | | |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 | | | 수용 | 참고 | 반론 |
| | 텐츠'를 또 준비 중이신지도 여쭙보고 싶습니다. | 에 응답할 수 있는 사회참여형 기획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농부 프로젝트, 골목 장터 재생 시리즈 등도 내부 논의 중에 있습니다. | | | |